

배우들 호흡까지 느껴지는 공간...소극장의 매력



‘제22회 광주소극장연극축제(GJSTF)’가 오는 18~27일 오후 7시 30분 예린소극장, 공연일번지, 예술극장 등지에서 열린다.

(사)광주연극협회(회장 원광연)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극단 ‘예린’, ‘DIC’, ‘좋은친구들’, ‘시민’, ‘청춘’ 등 5개 단체가 참여한다.

극단 DIC는 민복기 작가의 ‘슬픈연극’을 무대에 올린다. 병에 걸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남편 장만호가 차분하게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자 하는 반면, 아내는 애써 남편의 죽음을 외면하려 한다. 만호는 주먹기인 만담으로 아내를 위로하기도 하고, 간직하고 있던 아내의 첫 데이트 의상을 선물하기도 한다. 아내의 웃음은 만호의 가는 발목을 붙잡는다. 정문의 연출가가 참여했으며, 남편役に 심성일, 아내역에 문진희 배우가 출연한다. 18~20일 공연일번지.

극단 좋은친구들은 김나정 작가의 ‘사랑입니까’로 관객을 맞는다. 자연인으로 살고자 인적 드문 산속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아들 용진. 그런 아들을 어떻게든 세상으로 끌어내려는 아버지는 결국 산속에서 아들과 대면하게 되고, 주고받는 대화 속에 깊다 공연 모습.

‘제22회 광주소극장연극축제’

18~27일, 극단 ‘DIC’ 등 5곳 참여

‘슬픈 연극’ ‘일.상’ 등 무대에

은 상처와 애곡된 사랑의 실체가 드러난다. 노희철 씨가 연출을 담당했으며 양승걸·김정규 배우가 각각 아들·아버지 역할로 출연한다. 18~20일 예술극장 통.

극단 예린은 메레이 시스갈의 ‘타이피스트’를 각색한 연극 ‘아름다웠던 시간’을 공연한다. 20대에 직장 동료로 만나서 평생을 같은 사무실에서 살아온 팔복과 소녀는 시간이 흘러 어느덧 반백의 나이에 접어들었고, 퇴직하는 날 서로에게 못 다한 말을 전한다. 극단 대표 윤여송씨가 각색·연출을 맡았으며 장팔복 역에 정이형, 전소녀 역에 강원미 배우가 출연한다. 18~20일 예린소극장.

극단 시민은 연극 ‘일.상’을 무대에 선보인다. ‘근처에 지하철이 지나는 한 원룸에서 누군가 기다

리고 있는 남자를 촬영 중’이란 콘셉트로 진행되는 연극이다. 장원씨가 작·연출을 맡았으며 김민호가 공동연출했다. 25~27일 공연일번지.

극단 청춘은 서현철 작가의 ‘채플린 지팡이를 잃어버리다’를 준비했다. 삶, 사랑, 일, 죽음을 4개 에피소드에 걸쳐 이야기하는 유니버스극이다. ‘산부인과에서’는 만삭의 임신부와 임신·출산 전문가 청소부 아줌마, 여고생이 나누는 이야기를 선보이고, ‘공원에서’는 서로 이별을 고하고 마지막 만남을 가진 연인이 속마음을 표현하지 못해 애만 태우는 모습을 담았다.

‘지하철에서’는 물건을 팔기 위해 지하철을 찾은 청년이 얼굴에 철판을 갠 듯 당당한 장사꾼들에게 놀려 돌려 그들의 물건을 사게 되는 이야기를 담았고, ‘다리 위에서’는 삶을 포기한 사내와 그에게 탄지를 걸고 삶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오설균씨가 연출하고 김민성·강현구·차진아·오재호·장지선·임현지가 출연한다. 25~27일 예술극장 통.

문의 062-523-7292, 010-4016-5369.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장용림 작 ‘목화꽃-숨을쉬다’

홍정호 작 ‘산메아리’

‘청화선풍’ 17일~8월22일 금봉미술관

‘부채로 만나는 한여름 풍경’

다양한 부채 그림을 통해 더위를 날리고 풍류를 즐기는 전시회가 마련된다.

금봉미술관(한상운 관장)은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념하는 여름기획전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을 초청, 부채 전시회를 연다. 17일부터 8월22일까지 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기획전의 주제는 ‘청화선풍(淸畵扇風)’이다. 수묵·채색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여름에 대한 이야기를 부채를 통해 보여준다.

부채는 한여름, 시원함과 멋을 전해주는 필수품이었다. 또 소리꾼들이 항상 몸에 지녔던 부채에는 풍류가 담겨 있었다. 선조들은 부채살에 붙인 종이 위에 수묵담채로 산수화나 화초를 담아 시원함을 선사했고, 접었다 펼 수 있는 ‘필부채’를 확 펼칠 때 등장하는 사·서·화(詩·書·畵)는 인상적이었다.

19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까지 1전시실에서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연계 프로그램도 열린다. 부채명인 김대석과 문인화가 김남기 작가가 참여해 부채 만들기, 가훈 써주기 행사를 진행하고 흥겨운 국악 공연도 펼쳐진다.

참여작가는 강영화·고경숙·김동신·김숙연·류현자·위오남·이두환·정옥재·정해영·홍정순·홍정호 등 42명이다. 문의 062-269-9883. /김미은 기자 mekim@



이두환 작 ‘수류화개’



도예작가

31일까지 영산강문화관

유재홍

초대전

(주위투데이플러스 영산강문화관 관장 장희정)은 도예작가 유재홍 초대전을 오는 31일까지 개최한다.

충북 청주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유재홍은 이번 전시에서 도예 기술과 미적 감각이 어우러진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청주 공예비엔날레 초대작가이기도 한 유재홍의 이번 전시 주제는 실렘 가득한 ‘시간여행’이다.

그의 작품은 사각 프레임 속에 진지함과 발랄함이 공존한다. 연꽃, 학, 호랑이 등 전통문양을 청·적·백·흑으로 화려하게 구워낸 도편(陶片)의 기하학적성과 지퍼·나비 등 자유롭고 가벼운 소재들이 함께 어우러져 다양한 느낌을 준다. ‘공간여행-가방 속 고양이’, ‘공간 여행-핸드백을 들다’ 등은 유쾌함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홍익대 조형대학 산업공예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유재홍은 지금까지 20여 차례 개인전을 통해 변화를 추구해온 30년 내공의 중견으로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문의 061-335-0868. /김미은 기자 mekim@



유재홍 작 ‘시간여행’

천세진 시인 인문서 ‘어제를 표절했다’ 출간



“작가, 화가, 음악가는 고뇌와 수련을 거쳐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낸다. 예술가가 아니어도, 모든 삶은 독창적인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 삶에 아름다운 ‘문화 문신’을 새기고 봄날 벚꽃처럼 환하게 춤출 수 있다.”

문화비평가인 천세진 시인이 인문서 ‘어제를 표절했다’ (피서산장)를 펴냈다. 저자는 표절과 스타일이라는 키워드로 인문학을 해석하면서 인문학의 중심인 인간과 인간의 다양한 복제가 복제(표절)를 통해 이어지는 양상을 고찰한다.

“삶은 복제된다. 인간은 모든 장르에서 표절된 표절 덩어리지만, 기계로 찍어내는 존재가 아니어서 필연적으로 오차가 생기는 불량품이다. 하지만 불량품이어서 아름답다. (중략) 인간이 불량품이기 때문에 사회도 불량품이다. 불량품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최소화할 수 있다. 인문학의 목적은 불량 최소화화에 있어야 한다.”

저자는 동일한 스타일의 반복될 수 있는 복제 속에서도 매 시대마다 다른 문화를 보이고 문화적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창조적 스타일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쌍둥이조차도 서로 다른 ‘문화인종’의 산물로,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인 고유의 스타일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천 시인은 문화를 감식하는 해안을 기르기 위해선 모든 장르에 걸친 ‘스타일’의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인다. 이를 위해 자연과학 분야뿐 아니라 현대인들의 관심으로 부상한 음식, 음악, 의상, 지리, 건축 등 다양한 장르에 투영된 문화적 스타일의 차이를 사례를 든다.

저자는 “기억과 습관은 무형과 유형의 스타일이다. 기억은 이미 존재했던 생각들의 참고이며, 습관은 무수히 반복된 행동과 생각의 표출이다. 그것이 스타일을 만든다”고 주장한다.

한편 천 시인은 고려대 영문과와 방송통신대 대학원 문예창작콘텐츠학과를 졸업했으며 시집으로 ‘순간의 젤리’를 펴냈다. 2017년부터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시대적 현상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해왔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 ‘작가스테이저’에 선정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광주시립미술관, 16·18일 문화예술강좌

주영하 교수·유창종 유급와당박물관장 초청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 7월 문화예술 강좌가 열린다.

‘그림 속 삶 이야기’를 주제로 열리고 있는 제2기 광주시립미술관 아카데미 7월 강좌는 16일 오후 3시 미술관 본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날 초대강사는 주영하 한국중앙학 연구원 장서각 관장으로 ‘그림 속의 음식, 음식 속의 그림’을 주제로 강연한다. 062-613-7132.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제로 인문학 강좌를 열고 있는 하정웅미술관은 제 4강으로 유창종 유급와당박물관장을 초청해 강연을 듣는다. 18일 오후 3시 하정웅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에서 유관장은 ‘와당으로 본 역사와 문화 그리고 철학’을 주제로 강연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관장은 40여년 와당을 수집하고 연구했다. 와당 1873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고, 유급와당박물관을 설립했다. 주요 저서로는 ‘동아시아 와당문화’, ‘와당으로 본 한국고대사의 쟁점들’ 등이 있다. 문의 062-613-7152. 무료강좌. /김미은 기자 mekim@



주영하

유창종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